

“유커 잡아라” 항공 연계 여행인프라 구축 ‘시너지 기대’

호텔 품은 항공사, 이륙준비중

〈下〉 제주항공

호텔·항공 기본 매커니즘 유사
인터컨티넨탈호텔 브랜드 도입
지난해 3분기 1.8억 흑자 전환

제주항공이 후발 주자로 호텔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정이 넉넉치는 않은 상황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주항공의 항공업과 호텔업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안착을 이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주축 사업인 항공업조차 수익이 악화되며 호텔 운영을 통한 가시적인 수익 창출이 더 절실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숙박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

업을 겸하고 있는 항공사 가운데 가장 최근 호텔을 오픈해 운영 중이다.

제주항공은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호텔사업을 추진하고자 2016년 12월 퍼시픽 제3호전문사모 부동산 투자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브랜드를 도입해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라는 이름으로 호텔업을 시작했다.

이제 막 발을 댄 제주항공의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는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은 미미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호텔 부문 매출은 2018년 26억4300만원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71억7800만원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영업이익은 2018년 -15억7300만원에서 지난해 3분기 1억82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전체 영업이익의 1.51%로 아직 호텔업과의 ‘시너지’를 냈다고 보기는 힘든 수준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당시에 인바운드 승객들, 특히 중국인 승객 대상으로 준비됐었던 게 호텔사업이다. 준비 당시 특히 중국 기점으로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여행 네트워크 컴퍼니’라는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진행됐던 사업이다”며 “지금 투숙객의 50% 정도는 중국인이다.

오픈할 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1년만에 사실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호텔업계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일로 꼽히는 수준이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제주항공도 다른 항공사들처럼 홀리데이인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외국 관광

객들이 입국했을 때 이들을 호텔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업”이라며 “호텔 사업 진출은 일단 아웃바운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업종이다 보니 그런 노후가 많이 축적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 호텔, 항공, 금융 등인데 특히 호텔과 항공은 ‘객실’을 관리하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호텔도 객실이라 부르고 항공사도 기내를 객실이라고 부른다. 기본 매커니즘은 거의 같기 때문에 두 사업의 시너지를 기대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제주항공 여객기 모습.

/제주항공

‘창립 15주년’ 제주항공, 3대 도전과제 발표 “기준·마인드 높여 성공 DNA 올린다”

비정상 상황 대처·안전교육 강화

제주항공이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올해 3대 과제를 선포했다.

제주항공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변화된 항공산업 환경에서 LCC산업 선도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3대 도전 과제’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첫째, 안전운항체계는 승객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정도를 목표로 기준을 높인다. 둘째, 최고 경영자가 CCO로서 직접 고객서비스를 관리하는 등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높인다. 셋째, 제주항공이 15년간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핵심가치 ▲안전 ▲저비용 ▲도전 ▲신뢰 ▲팀워크를 재조명해 제주항공의 성공 DNA를 날카롭게 버린다.

이날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스카이홀에서 열린 15주년 기념식에서 이석주 사장은 2020년도 사업전략의 3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제주항공은 결항·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스카이홀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이석주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주항공

지연 등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직무별 안전교육을 강화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제주항공 대표이사의 직책을 ‘CCO’로 정의하고 국가공인제도 CCM인증 절차를 통해 객관적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학령인구 역전에 근심 가득한 대학 “대학정원비 학생 1.6만명 이상 부족”

〈고3+재수생〉

종로학원하늘교육 자료분석
특성화고 취업률 감안 50% 반영
수도권 제외한 지역 미달사태 우려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3학년생보다 많아지는 학령인구 역전 현상이 올해 본격화되는 가운데 2021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올해 고3과 재수생까지 합쳐도 대학 정원보다 1만6000명 부족하다는 예상이 나왔다.

22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와 각 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진학 희망자 수는 고3 재학생이 40만3000여명, 재수생은 13만명으로 약 53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대입 희망자 추정치는 일반고와 자율고, 특목고(마이스터고 제외) 재학생 전원이 포함됐고,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50%대임을 감안해 50%, 마이스터고는 취업률이 85%대임을 고려해 15%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관련 통계 발표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제자리걸음을 한 가운데 고령화 추세는 더욱더 빨라졌다. 서울 명동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대입 희망자로 추정했다.

반면, 2021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4년제 대학 34만7500명, 전문대 20만3159명을 합해 55만659명으로 모집인원 대비 대입 희망자가 적어도 1만6000

여 명 이상 미달할 것이라 예상이 나온다.

재학생 감소폭이 크고, 재수생도 소폭 감소한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44만5479명으로 전년(50만1616명)과 비교해 5만6137명 감소했다. 재수생은 전년 수능(2020) 지원자수 기준으로 14만2271명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1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제외 지역 전 지역에서 학생 모집 미달 사태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는 수도권 지역에 고교생 절반(약48%)이 있고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도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 광역시 통학권까지 고려하면 강원, 충북, 경북, 전북, 전남 등 지방 소재 대학들의 정원 미달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용수 기자 hys@

삼성리서치, ‘세계 0.1%’ IEEE 펠로우 배출 〈전기전자공학회〉

삼성리서치가 또 한 번 세계 최고 기술자를 배출해냈다.

삼성전자는 22일 뉴스를 통해 삼성리서치 몬트리올 인공지능 센터 스티브 리우 박사(사진)가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펠로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IEEE 펠로우는 학회 회원 중 최상위 0.1%에만 부여하는 최고 기술자 등급이다. 통신과 반도체 등 10년 이상 경력자 중 탁월한 연구개발 업적으로 사회



발전한 인물을 매년 선정한다. 리우 박사는 몬트리올 AI센터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며, AI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데이터센터 전원 관리와 네트워크 서버 응답 제어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등 업적도 있다.

/김재용 기자 juk@

SK가스, 카카오와 ‘모빌리티 사업’ 공동 추진

SK가스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SK가스는 지난 21일 성남 판교 SK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SK가스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네트워크와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를 결합

한 통합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SK가스는 LPG 충전소를 단순 연료 충전 공간이 아닌 휴식과 정비까지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카카오T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LPG 충전소에 대한 가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됐다. /김수지 기자



지난 21일 성남 판교 SK사옥에서 열린 미래 모빌리티사업 협력 MOU 체결식에서 윤병석 SK가스 사장(왼쪽)과 류공선 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가스